| 현불 논단 |

새 대통령, '불교문화' 주목해야



석길암 교수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문화강국 일구는 20대 대통령 기대
전 세계적으로 한국 대중문화 소비
독특한 정서 담긴 콘텐츠 근간에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면면히 담겨

전통문화 활성화는 지속성 토대 돼
국보 · 보물 상당수가 불교 문화유산
불합리한 규제 대신 보존 전승으로

전통문화 향한 진지한 관심 정책이
또 다른 통합의 출발점 되길 기대

제20대 대선의 긴 여정이 막을 내리고, 국민의 진정성을 담아낸 소통과 화합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하루를 전 국민이 맞이하는 아침이다. 그 아침을 맞아 문화강국의 전통적 기반을 새롭게 일구어내자는 제언을 대통령 당선인에게 드린다.

K팝, K드라마, K푸드! 이른바 한류 콘텐츠이다. 한류 열풍은 그 자체로 국제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으로도 사용된다. 정치, 외교, 경제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한류는 전문영역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가장 중요한 메신저이기도 하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중문화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정서를 담아내었으면서, 세계인이 공감하고 열광하고 소비하는 대중콘텐츠, 우리는 그것을 한류라고 부른다.

그러면 한류를 만들어내는 한국 대중문화의 토대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한류만의 독특한 정서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바로 전통의 사유, 전통의 문화, 전통의 정서이다. 그것이 한류콘텐츠의 가장 중요한 원천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류콘텐츠의 지속적 재생산 여부는 우리 전통문화 활성화 여부에 달려 있다. 원형의 고유한 전통 콘텐츠 곧 K문화콘텐츠가 활성화될 때, 한류콘텐츠 역시 다양화되고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거듭날 것이다. 불교문화를 핵심으로 하는 K문화콘텐츠를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국보와 보물의 절반 이상이 불교 문화유산이고, 다양한 한국의 전통문화가 불교와 사찰 살림살이 속에 살아서 전승된다. 문화유산 그 자체의 가치도 측량할 길이 없지만, 그것이 담아내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문화와 정서의 가치는 더욱 크다. 한국의 불교콘텐츠가 가진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그리고 활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더 이상 불교인들만의 의무가 아니다. 국가 차원에서 보존하고 지원해서,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값진 보물이 한국불교가 보존하고 있는 전통문화이다.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시키고, 활용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지원 역시 국가의 의무일 것이다. 원형의 K콘텐츠, 그 핵심이 한국의 전통 불교문화, 불교적 사유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근까지도 불교문화유산은, 전통사찰과 사찰림들은 활용되고 장려되지 않았다. 오히려 문화재 보존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수없이 많은 불합리한 규제 속에 오히려 폄훼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던 것이 한국 전통문화가 처한 국가적 현실이다.

제20대 대통령 당선자와 당선자에 의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단순히 불교, 불교문화를 장려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산업이 고도화 될수록 첨단기술 못지않게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인문콘텐츠와 문화콘텐츠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그 근간이 바로 한국 불교의 콘텐츠들이기 때문이다. 보존을 위한 지원, 한편으로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한국문화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문화를 떠나서 대중문화를 활성화하고, 전통문화를 저버리고서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한류콘텐츠를 생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 속의 수많은 갈등과 대립 그리고 국난의 고비마다, 한국불교는 소통과 통합의 아이콘이었다. 그 소통과 통합의 노력을 담아낸 결실이 바로 불교의 전통문화들이다. 대통령 당선인에게 불교를 비롯한 전통문화 중흥의 주역이 되기를 요청하는 것은, 그 불교문화와 전통문화 안에 이 땅의 시민을 하나로 묶어내었던 화쟁(和諍), 일심(一心)의 가치가 담겨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통, 화합, 통합의 아이콘인 전통문화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또 다른 통합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바람의 여신, 영등할망

3월 섬에 바람이 붑니다.

귀덕에서 한림항까지 걷다 보면 섬에서 섬이 보이는 한수리 마을을 지나게 됩니다. 한수리에서는 저 멀리 눈 덮인 한라산이 보이고 태고의 탄생 비밀을 간직한 신비의 섬 비양도가 보입니다. 그곳에 제주 바람의 여신 영등할망이 좌정하고 있습니다. 이 할망이 음력 2월 초하루에 들어와서 보름 동안 섬 바다에 씨앗을 뿌려놓고 나간다고 생각하며, 제주도민들은 영등제를 지냅니다.

어느 옛날 어부들이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으로 표류하여 어떤 섬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외눈박이 거인들과 마음이 어질고 착한 몸집이 큰 영등이 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바위 위에서 놀던 영등은 이들을 구하려고 배를 바위굴에 숨겨주었습니다. 잠시 후, 이마에 커다란 눈 하나가 달린 외눈박이들이 들이닥쳐 따져 물었지만, 영등은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외눈박이들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순진한 영등의 말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영등은 어부들에게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관음보살을 외우거라. 그러면 잔잔한 바람이 불어 안전하게 인도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영등에게 고맙다고 하고는 관음보살을 외우며 고향 앞바다에 다다랐습니다. 고향 포구를 본 사람들은 반가움에 관음보살 외는 것을 잊어버린 채 닻 내릴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배는 다시 바다 한가운데로 밀려나 거인의 섬으로 표류하였습니다.

이를 본 영등은 다시 배를 인도하여 자신의 바위굴로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빌고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영등은 외눈박이들이 곧 들이닥칠 터인즉 절대로 배에서 내릴 때까지 관음보살 외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떠나라고 재촉하며 덧붙여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떠나면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나도 천상으로 올라갈 때가 된 것 같다. 바쁜 세시 중 2월 초하루에서 보름 동안 시간을 내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올 것이니 도움이 필요하면 제를 지내도록 하라."

어부들은 꼭 그리하겠다고 약속하고 관음보살을 외며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한편, 뒤쫓아 온 외눈박이들이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영등은 모른다고 했으나, 외눈박이들은 개들을 데려와 냄새를 맡게 하여 거짓말하는 영등을 세 토막을 내어 죽입니다. 도민들은 영등이 비록 몸은 죽었으나 영혼은 살아 제주 바다를 지키며 바다의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영등은 할망으로 숭앙받으며 선주나 어부들에겐 항해의 안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람은 고통과 행복의 바다를 가져다줍니다. 외눈박이의 편견으로 보면 아무리 큰 힘을 갖고 있어도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자비의 행을 통해서 관음보살님께 다가가면 열반의 고향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의 순풍처럼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는 고해를 건너 피안으로 인도됩니다. 본고향에서 보면, 행복과 불행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풍요롭게 수놓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주 선래왓 주지〉

社 說

'군승' 파송 종단 대응 시급하다

'승려' 정체성 강화를 위해 진행된, 2009년 종헌 9조 2항 군승법사 독신 예외 조항 삭제 이후 군승 수급이 난항을 겪고 있다.

출가자 감소로 의무할당제 조차 힘겨운 상황에서 '군승' 뿐만 아니라 '군법사'의 파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3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승 파송 수급난을 호소했다. 2021년 미달 사태 이후 2년째로, 이번에는 정원 18명 중 8명 밖에 채우지 못했다. 체력검정 등을 거치면 파송인원이 줄기에 사실상 1/3토막난 상태다.

군승 파송 미달 사태의 주요 원인은 '출가자 감소'다. 출가자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파송할 '군승'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전체 파송인원을 독신비구로 규정한 이후 대부분 군법사로 활동하는 군종사관후보생 지원이 사라지고, 군승요원 중심 충원만 이뤄진 결과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립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되는 군종사관후보생을 다시 활성화 하는 방안이 현장에서 제기된다.

사실 군승 정체성 강화는 군종장교로 활동하며 스님들이 환속하는 등 승려 정체성이 하락한 것이 명분이 됐다. 이러한 당위성은 아직도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군종사관후보생 독신 예외 부여 목소리가 높다. 승려 정체성의 문제는 군승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 하는 방안으로 극복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군승 파송이 지속적으로 미달된다면 군포교 현장에서의 역량 약화는 명약관화하다. 군포교는 미래포교의 터전이다. 현실적인 군승 파송문제에 대한 종단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불자 온정으로 산불 재난 극복을

전례 없는 겨울철 가뭄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최근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3월 4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 동해시 일대에 발생한 산불 피해 규모는 엄청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월 11일 현재 산림 피해면적이 2만4158ha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산불 사태로 주택 358채를 포함해 공장 · 창고는 167곳, 종교시설은 75곳이 피해를 입었다. 현재 동해안의 산불 피해 상황은 심각하다. 집이 전소돼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인원만 1000여 명이 넘는다. 완전 진화가 늦어지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복귀가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재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때문에 산불 발생 직후 현장에 긴급구호 선발조사단을 파견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대처는 시의적절했다.

조계종과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 협력해 성금모금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소식도 가슴을 따뜻하게 한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성금을 기탁했고, 전국 교구본사 및 사찰들이 잇따라 구호기금 모연에 동참, 아름다운동행과 각 단체를 통해 전달하는 등 자비 실천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국제협력단체 더프라미스와 지구촌공생회도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 특히 더프라미스는 현장 상황실에 직접 방문, 산불 진압에 힘쓴 방재단 및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급식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불교계의 성금모금에 담긴 온정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아픔을 보듬는 마음은 재난피해를 극복하는 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전국의 사찰과 불자들의 온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